우리 동네 소식

수완동, 광주시 '제1호 안전마을' 선정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이 '2019 광주시 안전마을'에 선정돼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 안전마을은 '안전문화 3·3·3 운동'을 비롯해 시민의 안전 참여, 안전 문화 의식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한 우수 마을·학교·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수완동은 올해 광주 5개 자치구 95개 동 중 유일하게 안전마을로 선정됐다.

시민 안전 자생단체인 수완동 시민안전점검단(단장 박병기)은 지난해부터 시민 주도형 안전플랫폼 구축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다.

특히 단원 전원이 안전 자격증을 취득해 찾아가는 안전교실 13회 운영, 노란발자국 4개교 31곳 설치, 안전신문고 신고 940건, 안전문화 캠페인 9회 실시 등 성과를 올렸다.

광주시는 이렇게 시민 참여로 안전을 가꿔온 노력을 높이 평가해 수완동을 안전마을로 선정했다.

마을 활력소 '참사람 숲, 울창' 개소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마을활력단(단장 차정미)이 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을 활력소 '참사람 숲, 울창'을 개소했다.

마을 활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소통·참여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시범 사업' 선정으로 마련됐다.

우산동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마을활력단은 공간 구성부터 디자인까지 9차례 주민 워크숍, 11회 회의를 거쳐 마을활력소의 밑그림을 그렸고 앞으로 운영·관리까지 맡을 예정이다.

첨단중, 첨단2동에 김치 25박스 기탁

광주 첨단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최근 '김장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학교 텃밭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치 25박스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세대 등에 전해달라며 첨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신인숙 첨단중학교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산=고훈석기자

"의료·돌봄·복지 통합 맞춤 서비스 제공해야"

광산형 복지혁신포럼서 영구임대아파트 해법 제시

區, 주민 생활개선 5개 분야 '늘 행복 프로젝트' 발표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3일 광산구청에서 '영구임대아파트 패러다임의 전환 생활실태 결과 보고 및 광산형 복지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광산구 제공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가 해결책입니다. 1차 의료와 여러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협력 복지모델이 중요합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교수는 지난 23일 광주시 광산구 주최로 구청에서 열린 '영구임대아파트 패러다임의 전환 생활실태 결과보고 및 광산형 복지혁신포럼'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의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영구임대아파트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6-8월 광산구 공무원 146명의 우산동 2개 영구임대아파트 가구 2천263곳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아파트 의료·돌봄·주거·일자리 문제 해법과 정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영구임대아파트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2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중 1인 가구는 69.8%고 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 44.8%와 경제 43.6% 순이었다. 나아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주민이 각각 51.1%, 25.3%에 달했다.

손명동 광주여대 교수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의 좌장은 이형하 광주여대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임 교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1차 의료를 위한 광산구의 마을주치의 제도 기획을 환영하며 시민 참여가 중시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고비용 저효율 의료구조 개혁 등도 강조했다.

나아가 주민 건강리더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의료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이웃 건강문제를 건강리더들이 해결하면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방안도 참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패널로 참가한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 연구' 발표에서 민관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실시한다"며 "공간 단위에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는 사회보장특구 지정을 (영구임대아파트에) 광산구가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대표이사는 "광산구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협업을 잘 해왔다"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결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융합 구조를 완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실태 공유와 토론회 중간에 '존중과 품격이 있는 삶'을 비전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늘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는 주치의제도 도입, 돌봄센터 설치, 일터 제공, 하우스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이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실태조사와 정책을 비롯해 광산구는 그동안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해왔다"며 "복지 분야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 부족한 점 등을 공직자들과 함께 발로 찾아내서 시행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기자

區, 착한가격업소 제도 정착 우수지자체

행안부 평가 장려상 수상

광주시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착한가격업소 제도 정착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받고 상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행안부 평가는 착한가격업소 체계적 지원과 제도 정착 등에 노력한 전국 자치단체 우수정책을 발굴·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대비 5개소가 증가한 28개의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광산구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광주세계수영대회를 맞아 안정된 물가관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했다. /광산=고훈석기자

노사민정協, 일·생활 균형 공동 선언문 채택

광주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최근 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사업보고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일·생활 균형 실현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서 노사민정 위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이 지역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일하는 문화·방식과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등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결성 20주년을 맞아 공로자 감사패 수여와 신임위원 위촉식도 있었다. /광산=고훈석기자

'개발부담금 특례' 31일 종료

광주시 광산구가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오는 31일 종료한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해 토지 투기수요를 막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국토균형발전에 활용하는 제도다.

특례가 없어지는 내년부터 광산구 도시지역 660㎡, 도시 외 지역 1천650㎡ 이상에서 토지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광산=고훈석기자

인권감수성 '도전 골든벨'로 키워요 광주시 광산구가 최근 이틀간 월곡초등학교와 평동중학교에서 각각 '도전! 청소년 인권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의 위주의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서바이벌 퀴즈 방식 인권문제를 접근해 흥미를 느끼며 관련 지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제공

공공서비스 구축 경진대회 '우수상'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호평…2년 연속 수상

광주시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모범을 보인 곳을 선정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지난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성과관리 분야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는 이번 수상의 이유로 민선7기 공약 '시민 체감형 보건복지의료 기능 강화' 실천, 시민 공공서비스 체감도 제고, 지역 특성 맞춤형 마을공동체 실현 등을 꼽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광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내 삶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고훈석기자